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고]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올해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겠다” -1면	-	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07일)

○ [기고]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

##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

봄비는 새싹을 돋아나게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새해가 시작돼 두달 새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2일 많았고 강우량도 185mm 더 많았다.

제주 봄철 특새작목으로 정착한 초당옥수수는 밭에 옮겨 심는 시기가 다가왔으며 미니단호박은 씨앗 파종 후 육묘 관리가 한창이다. 그러나 최근 잦은 비로 옥수수가 제때 심어지지 못하고 육묘 중인 미니단호박 모종도 일조 부족으로 웃자라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코자 한다.

초당옥수수는 육묘 25일을 넘겨 심으면 수확량이 13% 감소하므로 어렵더라도 맑은 날이 이어지는 시기를 택해 빨리 심어야 한다. 육묘 중인 미니단호박은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온도는 주간 20~24도, 야간 15도 내외로 관리하고 물은 오전에 적게 줘야 웃



**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육성팀장

자람과 모잘록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돌풍이 자주부는 3~4월엔 터널비닐이 파손되지 않도록 흙을 잘 덮어주고 호우나 강풍이 지난 후 보강 작업을 해 줘야 한다. 터널비닐

이 파손되면 외부의 찬 공기로 인해 생육이 멈추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4월이 되면 터널 안에 있는 초당옥수수 줄기를 밖으로 꺼낸 후 10a당 요소를 40~60kg을 쥐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니단호박은 밭에 옮겨 심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터널비닐을 덮은 다음 90cm 간격으로 환기 구멍을 뚫어야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6월이면 만날 수 있는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세심한 생육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  
뉴제주일보 14

(제주일보: 2024년 3월 07일)

○ [기고]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

## 지금 농업 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



나의 의견

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육성팀장

봄비는 새싹을 돋아나게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새해가 시작돼 두 달 사이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2일 많았고, 강우량도 185mm 더 많았다.

젖은 비로 인해 제주지역 봄철 텃새작목으로 정착한 초당옥수수는 밭에 옮겨 심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제때 심어지지 못하고, 미니단호박은 씨앗을 파종한 후 육묘 관리가 한창이어야 함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라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초당옥수수는 육묘 25일을 넘겨

심으면 수확량이 13% 감소하므로 어렵더라도 맑은 날이 이어지는 시기를 택해 빨리 심어야 한다.

육묘 중인 미니단호박은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온도는 주간 20~24℃, 야간 15℃ 내외로 관리하고, 물은 오전에 적게 주어야 웃자람과 모잘록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돌풍이 자주 부는 3~4월에는 터널비닐이 파손되지 않도록 흙을 잘 덮어주고, 호우나 강풍이 지난 후 보강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4월이 되면 터널 안의 초당옥수수 줄기를 밖으로 꺼내 10a당 요소 40~60kg을 주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니단호박은 밭에 옮겨 심어 뿌리가 잘 뻗도록 물을 주고 터널비닐을 덮은 다음 환기 구멍(90cm 간격)을 뚫어야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세심한 생육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바란다.  
3.7  
제주일보 14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07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및 병해충 방제 정보

- ▲시설딸기
  - △2화방 수확 마무리, 3화방 과실 비대중
  - △일조부족에 따른 과습 포장 일부 잿빛곰팡이병 발생
  - ▲양배추
    - △젖은 비날씨로 일부 포장 통터짐 현상 및 균핵병 발생
    - ▲양파
      - △젖은 비날씨로 일부 잿빛곰팡이병 발생
      - △물빠짐 나쁜 포장은 시들음병 발생 우려
- ▲초당옥수수
  - △2월 28일부터 노지터널재배 정식 시작. 젖은 비로 예정일보다 5~7일 지연
  - △외부기온 15도 이상 본엽 3매 정도에 정식하는 것이 좋으며 육묘기간

이 길어지면 묘가 노화되어 수량 및 상품성 크게 감소

- ▲단호박
  - △정식 30~35일 전 파종
  - △밭아 후 순차적으로 온도를 내려 옷자람을 방지하고 본엽 3매 시야간 10~13도 저온조건을 형성해 암꽃 수를 늘려줌
  - △파종 25일 후 요소 0.2%액(물 20ℓ에 요소 40g) 엽면시비
  -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7.

뉴제주일보 13

(제주일보: 2024년 3월 07일)

○ “올해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겠다” -1면

“올해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둔

#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겠다”

오영훈 도지사 어제 차담회서

4·3추념식에 윤 대통령 참석 요청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76주년 제주4·3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참석을 요청했고,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단 차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추경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고,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해야 한다. 2025년 예산편성과도 연계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3.7. 제주일보** 1면에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추경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빠른 시일 내 이와 관련한 방안이 마련되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추념식 대통령 참석과 관련해 오 지사는 “지난주에 담당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사태와 관련해 “의사는 늘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협의가 복지부 차원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아는데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 협상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화되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텐데 도민들의 염원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총선 후보의 공약에 제주의 현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오 지사는 “각 정당에서 총선 공약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나 정책 대안 요청이 오면 적극 화답하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우주산업 등 제주의 핵심 산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행정체제 개편 의지 표명 등을 제시했다. 강재병 기자